SBS 매거진 4

2000

CONTENTS 4

표지설명

풋풋하고, 푸른 열정으로 빛나는 아나운서 윤지영. 방송이 사랑스럽고 애인같다는 그녀는 방송인으로서 오직 한 길만을 걸어가길 꿈꾼다. **사진 / 조광희**

SBS 매거진

04 **초점 / 「사랑의 전설」 황신혜 & 「불꽃」 이영애**
원숙함과 변신으로 다가온 연인들 · 김영규

08 **총선 2000 국민의 선택**
빠르게, 정확하게, 재미있게… · 김기성

10 **새 프로그램 / 「실속TV! 시선 집중」**
시트콤 형식의 실속 가득한 정보프로그램 · 김은주

12 **새 프로그램 / 「금요컬처클럽」**
정형을 탈피한 문화 따라잡기 · 강윤이

14 **커버스토리 / 윤지영 아나운서**
방송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욕심쟁이 · 이지혜

18 **방송 따라잡기 / 「순풍 산부인과」의 장수 비결**
일상 소재에서 비롯되는 웃음과 재미 · 이후남

20 **화보 / 2000 SBS 톱 탤런트**

26 **줌인 / 웹 자키**
"인터넷 항해, 내게 맡겨라"

28 **클로즈업**
색깔 있는 연기로 승부한다 · 지호진

32 **새내기 / 탤런트 이인혜**

34 **제작기 /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제발 이 제보가 사실이길…" · 류상우

36 **방송가 사람들 / SBS아트텍 조명감독 최용훈**
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꿈꾼다 · 김정덕

38 **자회사 뉴스**

40 **이달의 SBS 영화 특급**

42 **라디오 세상 / 표준 FM**
「SBS 인터넷 세상-김진표의 야간비행」 · 오정은

44 **라디오 세상 / FM**
「이숙영의 파워 FM」 · 이숙영

46 **TV 및 라디오 편성표**

51 **이제는 생명이다** · 김영우

08

20

SBS 매거진 2000년 4월호

- 통권 제101호 2000년 4월 1일 발행 월간 비매품
  1991년 11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 라-5316
- 발행 · 편집인 / 송도균 주간 / 송석형 부주간 / 박희설 기획 / 남지혜, 이정숙 사진 / 서창식, 조광희, 김연식
- 발행처 / (주)SBS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전화 786-0792, 369-1114
- 편집 · 디자인 / 디자인 비, 전화 382-3828 • 스캔 및 출력 / (주)스타트, 전화 2264-2050
- 인쇄인 / 이건호 인쇄 / (주)영은문화사, 전화 2274-9250

- 「SBS 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주)SBS의 동의 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BS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sbs.co.kr입니다.

원숙함과 변신으로 다가온 연인들

밀레니엄의 첫 봄! 386세대의 눈길을 끄는 두 여인이 있다. 드라마 왕국 재건에 나선 SBS가 황신혜와 이영애를 전면에 내세워 30대 시청자들을 안방으로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이다.

첫 사랑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황신혜가 「사랑의 전설」로 한결 원숙해진 아름다움을 풍기며 우리 곁을 찾아왔다. 또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참사랑의 가치를 그려나가는 「불꽃」에서는 착한 여자, 청순하고 순수한 여자의 이미지를 훌훌 벗어 던지고 과감하고 당당함으로 맞선 이영애를 만나볼 수 있다.

현재 이 두 드라마의 황신혜와 이영애가 지난 80년대 격동의 세월을 경험한 세대들에게 어필되어 서서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특히 30대들이 IMF체제 극복의 주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을 겨냥한 드라마가 앞으로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사랑의 전설」과 「불꽃」은 이렇게 같은 연결선상에 서 있는 셈이다.

원숙하게 다가온 감성의 여인, 황신혜

지난 97년 「신데렐라」와 98년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 이후 연기활동을 접고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행복에 젖어 있던 황신혜가 「사랑의 전설」을 통해 3년 만에 그녀 특유의 감성적 연기로 우리 곁을 찾아왔다.

그 동안 출산이라는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오히려 전보다 원숙함이 더해져 한결 예뻐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녀는 그 동안 드라마 「첫사랑」을 시작으로 「모래 위의 욕망」 「신데렐라」와 영화 「301, 302」 「죽이는 이야기」 최근의 「주노명 베이커리」에 이르기까지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종횡무진 누비며, 출세를 위해 교활한 속임수를 일삼는 악녀에서 푼수끼 있는 3류 영화배우까지 다양한 연기를 선보여 왔다. 특히 「애인」에서 보여준 30대 유부녀의 애뜻하고도 미묘한 감성 연기는 애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만인의 연인' 이라는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공인된 바 있다.

이러한 그녀가 「사랑의 전설」로 3년 만에 다시 찾은 브라운관에서 결혼 생활 속의 외로움에 지쳐 있던 중 옆집으로 이사온 첫사랑을 만나게 되면서 갈등하는 특유의 감성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을 간직한 채 현실에 이끌려 남편 최정환(김상중 분)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정영희(황신혜 분). 정영희는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차가와 보일 정도로 냉정한 척 하지만 애틋한 첫사랑을 가슴 한 켠에 담고 산

출산이라는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오히려 전보다 원숙함이 더해져 한결 예뻐졌다는 평을 들으며 드라마에 복귀한 황신혜. 그녀가 「사랑의 전설」과 함께 특유의 감성적 연기로 우리 곁을 찾아왔다. 그녀는 이 드라마에서 첫사랑의 남자와 변해버린 남편 사이에서 갈등하는 역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그 동안 순종적이고 순수한 여인으로만 시청자에게 비춰졌던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그녀가 SBS 특별기획 「불꽃」에선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불꽃」을 통해 일련의 공식화된 사랑 방정식을 과감히 거부한 채 도전적 사랑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다. 한민석(최민수 분)과는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가난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이뤄지지 못한 과거를 지니고 있다.

그녀는 결혼 이후 자신에 대한 소유욕이 충족되자 서서히 변해 가는 남편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끼다 어느 날 변호사로 성공을 거둔 민석이 옆집으로 이사오자 첫사랑의 남자와 변해버린 남편 사이에서 갈등한다.

부드러우면서도 감성적인 '정영희'가 황신혜의 연기속에 철저히 녹아있어야만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답게 그녀는 시청자들에게 조금도 실망을 주지 않았다.

불꽃처럼 변신한 산소같은 여자, 이영애

이영애는 SBS 특별기획 「불꽃」을 통해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꾀한다. 약혼자가 있는 몸으로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와 열정적인 밤을 보내고 그 남자를 가슴에 안고 사는 여자를 연기하는 그녀를 보면 '산소 같은 여자'로 대표되던 기존의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 던졌다는 것을 금새 눈치챌 수 있다.

드라마 초반 파격적인 러브신을 불사한 것은 변신의 서막일 뿐이었다. 「불꽃」을 통해 마치 과거를 훨훨 태워버리려는 듯 또 다른 불꽃을 피우고 있는 중이다.

아르바이트 삼아 모델 일을 시작한 그녀, 어느덧 10여년 전의 일이다. 산소 같은 여자 카피로 유명한 모 화장품 CF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이를 발판으로 93년 「댁의 남편은 어떠십니까」로 안방극장에 진출하였다. 하지만 광고로 새겨진 이미지가 너무 강했고 이는 곧 그녀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그때마다 그녀는 탈출구를 찾았다. 지난 97년에 출연한 「내가 사는 이유」는 그녀에게 연기 변신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 주었다. 당시 술집 작부를 연기한 그녀는 단지 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죄(?)로 시청자들의 눈밖에 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지난해 출연한 「초대」와 「파도」는 그녀의 눈물겨운 변신에 대한 가능성이 엿보인 경우였다. 「초대」에서 그녀는 8년 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이창훈을 버리고 초등학교 때 남자친구였던 김상경과 뜨거운 키스를 나누는 신으로 연기 변신의 신고식을 치뤘다. 또 세간의 화제를 불러모았던 「파도」에서 보여준 그녀의 연기는 기존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변신을 향한 그녀의 뜨거운 열정이 드라마 전편을 가득 메웠다는 평가를 함께 받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제 그녀는 내심 「불꽃」에서 도전적 사랑을 그려 변신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 동안 순종적이고 순수한 여인으로만 시청자에게 비춰졌던 그녀가 「불꽃」을 통해 일련의 공식화된 사랑 방정식을 과감히 거부한 채 도전적 사랑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드라마 제작진의 분위기도 변신을 갈망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해준다. 찰떡궁합으로 정평이 난 스타 작가 김수현과 정을영 프로듀서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듯 하다. 그리고 이경영을 비롯해 차인표, 조민수 등 그녀를 둘러 싼 주인공들의 탄탄한 연기력도 변신하는 이영애의 버팀목이 아닐까.

황신혜의 완숙하고 감성적 연기가 압권인 「사랑의 전설」과 이영애의 불꽃같은 연기 변신이 백미인 「불꽃」, 이들을 통해 드라마 왕국 재건에 나선 SBS의 밀레니엄 출사표를 발견하게 된다. SBS

글/김영규 · 자유기고가, 사진/김연식

정치꾼의 세 치 혓바닥 위에 나라의 장래가, 민초들의 삶이, 정의가 놀아나는 정치의 계절이 개막됐다. 일부에서는 극도의 외면으로 이러한 무질서에 대항하기도 하지만 선거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고 거듭된 시행착오를 통해 옳고 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현실을 수용하는 가장 긍정적인 답변일 것이다.

물론 선거방송팀이 준비하고 있는 방송은 이러한 선거 과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또 무질서한 작태에 대해 일침을 놓을 수 있는 논평의 기능을 가진 것도 더더구나 아니다. 이러한 진흙탕의 과정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전달하는 극히 기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의 신기술이 응용되고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전국을 연결하는 중계기능 등이 총 동원되기 때문에 가히 보도 프로그램의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선거방송을 통해 SBS의 보도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선거방송팀의 임무이고, 할 수 있는 것의 모든 것이다. 선거방송팀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4월 13일 당일 동료로부터 그리고 시청자로부터 판가름 받게 되겠지만 그 동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의 일단을 소개하고자 한다.

총선 2000, 국민의 선택

빠르게, 정확하게, 재미있게···

차별화 전략으로

늘 지적되는 것이지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국가의 대사가 치러지고 이를 방송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방송사들은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에서 다르지 않은 방송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어느 채널을 보든 간에 목소리와 순서만 다를 뿐 전달하는 내용이나 형식은 결코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선거방송팀은 평균적 시각에서 질책의 소지가 있다하더라도 차별화를 주제로 삼기로 했다.

편성의 차별화. 편성의 차별화는 지난 번 선거에서도 SBS가 시도했던 것으로 이번에도 다른 방송과 달리 최대한 정규 방송을 살리면서 선거 방송을 보도할 계획이다. 정규방송을 살리면서 방송을 하되 전달되는 내용 면에서 다른 방송에 모자라지 않도록 보완해 차별화 정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내용의 차별화. 선거방송을 오래 담당한 전문 기자들을 붙들고 물어 보면 선거와 관련된 보도 아이템이 수십 개 쏟아지게 마련이다. 이 내용들은 다른 방송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도 바꿔 볼 작정이다. 선거를 끝내고 SBS 앞에 앉은 시청자들에게 선거도 충분히 흥미있는 방송거리라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달방식의 차별화. 비슷한 화면에 비슷한 목소리를 이번에는 벗어나고자 한다. 세세한 화면의 디자인에서부터 리포트 방식까지 타 방송과 다른 것을 선택의 일순위로 두고 선거방송을 만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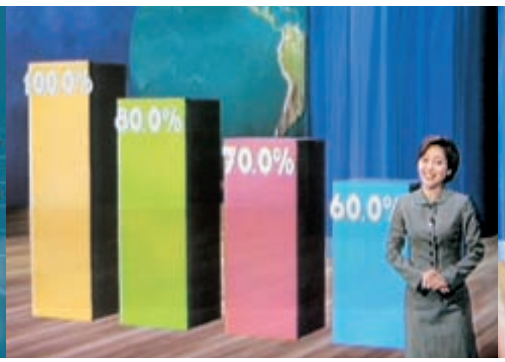
물론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차별화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고 또 자칫 무모한 차별화가 상궤를 벗어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방송팀은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준비의 막바지를 맞아 남과 다르되 더 나을 수 있는 묘책을 찾아 가다듬고 있다.

나잘난 박사가 전하는 선거방송

인터넷과의 상호 협력.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는 인터넷이다. 세상이 사이버 세계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알고자 하는 지역구의 개표 상황을 어떤 매체보다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방송

팀은 지난 달 25일부터 총선 홈페이지(vote.sbs.co.kr)를 개설해 다른 방송사에 앞서서 네티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노력했다.

신기술의 응용. 선거를 보다 흥미 있게 보도하기 위한 방송의 신기술은 무엇인가. 그 동안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선거방송팀이 채택한 것은 버츄얼 스튜디오와 모션캡쳐 시스템이다. 버츄얼 스튜디오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방송 화면에서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화면에 구현하는 기술이 미비했으나 이번에는 이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버츄얼 스튜디오가 단순히 눈요기 거리가 아닌 개표 결과의 분석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션캡쳐 부문에서는 SBS가 '나잘난 박사' 라는 뛰어난 인물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선거방송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니컬한 나박사의 캐릭터를 선거에 접합시켜 딱딱한 선거방송의 청량제로 만들어 볼 계획이다.



신속한 집계. 선거 방송의 생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개표 결과의 신속한 보도일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방송팀은 전산팀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노트 북 입력 방식을 채택했다. 과거 개표소에서 요원이 전화로 집계 데이터를 불러주면 본사에서 다시 입력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선거 방송의 꽃, 당선자 예측 조사. 이번 선거에서는 출구조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따라서 개표에 앞서 선거 결과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됐다. SBS는 KBS와 공동으로 전국 227개 선거구에 대해 3차례 전화 조사와 선거 당일 80여 개 선거구에 대한 출구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문 교수단을 구성해 국내 유수의 4개 여론 조사 기관을 선정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자문 교수단을 중심으로 감리단을 구성해 최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선거방송의 얼굴, 세트. 대형 보도 프로그램의 얼굴이라는 세트 문제를 놓고 역대 선거방송팀의 고민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본사 현관을 활용하기도 하고 옆 건물을 빌려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에 진력했지만 그 때 마다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탄현의 대형 스튜디오를 이용하기로 했다. 200평이 넘는 공간에서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고 6대의 카메라를 동원해 생동감을 살릴 계획이다.

선거방송 체제로의 빠른 전환

정규 방송에 따른 선거 정보의 부족 문제 해결 . 정규 방송에 따른 선거 정보의 부족 문제는 자칫 SBS 선거방송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고 돌발 사태에 대한 대응력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선거방송팀은 전 시간대 방송이라는 기본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언제든 선거방송 체제로 전환 가능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방송을 해 온 선배들의 얘기는 "준비는 사람이 하고 결판은 하늘이 낸다"가 아니었던가. SBS 선거방송팀도 이러한 결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상상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빠르고 정확하고 재미있으며 사고 없는 방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날짜가 다가 올수록 마치 시집가는 신부 마냥 뭔가 불안한 것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선배 동료, 후배 그리고 시청자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마지막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SBS

글/김기성 · 선거방송준비팀장

시트콤 형식의 실속 가득한 정보프로그램

새 프로그램 | 「실속TV! 시선 집중」

기획/이근용, 연출/김형수,박광수,류화성, 진행/최영주,조영구,오영실,
방송/목요일 오전 11시, 제작/캔디 프로덕션

"여보세요? 최영주 아나운서와 조영구 씨가 정말 결혼한 사이에요? 언제 결혼했어요?" 요즘 「실속TV! 시선 집중」 팀은 이런 전화를 받고 해명하느라 바쁘다.

최영주 아나운서와 조영구 씨가 진짜 부부보다 더 자연스러운 신혼 부부로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본 시청자들이 현실과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오전 11시에 첫 방송된 「실속TV! 시선 집중」은 국내 방송 사상 최초로 시도된 시트콤 형식의 주부들을 위한 정보 프로그램이다.

「실속 TV! 시선 집중」은 주부들이 진행자인 최영주 아나운서와 전문MC인 조영구, 오영실을 연예인이 아닌 이웃처럼 생각하고 시청하면서, 또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를 담고있다.

일단, 세트부터 여느 정보 프로그램과는 다른, 부엌과 거실이 주무대이며, 프로그램 내에서 아나운서 최영주와 조영구는 각각 깔끔한 신세대 주부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IP 사업을 하는 소호족 남편으로 분한다. 여기에 위층에 사는 이웃집 언니 오영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놀러와 차 한 잔 마시며,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는 정보도 나누면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간다.

프로그램 내에서 조영구는 이사를 공짜로 시켜주고 경매품을 받는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한 가족 중 매주 한 가정을 찾아가 '실속이사! 공짜로 해드립니다' 코너를 진행한다. 정든 동네를 떠나는 아쉬움과 새로운 동네를 찾아가는 설레임이 가득한 이사하는 날. 무료로 이사하는 행운을 얻은 가정에서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경매에 내 놓아야 하는데, 이 물건은 www.sbs.co.kr에 개설된 '실속TV! 시선 집중' 코너로 가면 누구나 살 수 있다.

「실속TV! 시선 집중」의 또 다른 재미는 주부들이 직접 집에서 홈비디오로 찍은 알뜰하고 신기한 생활 아이디어를 소개시켜주는 '행복한 티타임'이다.

달걀 하나로 두 개의 계란 후라이 만드는 법, 양파망을 이용한 초간편 샐러

「실속TV! 시선 집중」은 주부들을 위한 시트콤 형식의 정보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여느 정보 프로그램과는 달리 세트부터 부엌과 거실이 주무대이며 최영주 아나운서와 전문MC인 조영구, 오영실이 등장해 진행한다. 진행자들이 가정집같은 편안한 세트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실속 이사! 공짜로 해드립니다' '행복한 티타임' '가화만사성-7시에 모여라' 등의 각 코너를 보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실속TV! 시선 집중」은 방송 초기에 우려했던 진행자들의 연기실력이 나날이 향상되어 이제는 능숙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드 만드는 법 등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그 중 가장 신기하고 번뜩이는 재치가 묻어나는 정보는 직접 스튜디오에서 진행자들이 실연해 보기도 한다. 한 달 동안 보내준 아이디어를 모아 월말에는 시청자가 뽑는 월별 콘테스트를 진행하여 주부들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이 색다르게 선보이는 코너는,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매일 저녁 7시에 모여 저녁식사를 같이 먹는데 성공하면 푸짐한 상품을 주는 '가화만사성-7시에 모여라' 다.

핵가족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 팽배한 요즘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모여 매일 함께 저녁을 먹는다' 는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갈등과 화해 그리고 사랑을 담은 한편의 '가족 드라마' 를 엮어나갈 계획이다.

백재현 씨 가족편이 방영된 후 "우리 집도 이제부터 저녁은 꼭 같이 먹기로 했다. 어떻게 신청하는가"라는 시청자들의 전화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 세 코너는 프로그램 성격상 진행자들이 가정집같은 편안한 세트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각 코너를 보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제작진이 초기에 우려했던 진행자들의 연기실력은 나날이 향상되어 이제는 최영주와 조영구가 진짜 부부같은 능숙한 연기를 보여준다.

연기도 진행도 만점인 세 명의 진행자를 보면서 올 연말 시상식에서 아나운서와 진행자 부문이 아닌 신인 연기자 부문에서 이름이 불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SBS

글/김은주 · 「실속TV! 시선 집중」 작가, 사진/조광희

정형을 탈피한 문화 따라잡기

새 프로그램 | 「금요컬처클럽」

기획/이근용, 연출/정상일, 이혁호,정재윤, 이중화, 진행/신용철, 김혜연, 방송/금요일 오전 11시5분, 제작/미디어 텐

요즘 신세대들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묻는다면, 과연 가장 많은 대답은 뭘까? 정치? 경제? 정보통신? 물론, 어느 정도의 관심은 존재하겠지만 이전 세대와 신세대들을 나누는 가장 큰 특징은, 문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참여도라고 한다. 이른바 '문화의 세대' 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다.

흔히들 '보이지 않는 문화의 전쟁시대' 라고 불리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그 새로운 출발을 함께할 혁신적인 문화정보 프로그램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달 24일 첫방송 후,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5분 시청자들을 찾아가게 될 「금요컬처클럽」이 그 주인공.

'기존 문화정보 프로그램의 딱딱함과 난해함을 벗자!' 라는 프로그램의 모토 때문일까? 「금요컬처클럽」을 만들어가는 모든 제작진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보아왔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에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클럽멤버의 선정부터, 코너의 배치와 아이템의 결정까지 참신함과 세련됨을 가장 큰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금요컬처클럽」은 보다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되고자 발빠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코너가 바로,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현상을 집중 분석하는 '클릭! 문화세상' 이다.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문화 현상을 속속들이 취재, 분석해 보는 기획 코너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와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생생한 언더문화 현장과 화제의 공연을 직접 찾아가는 '베스트라이브' 역시 「금요컬처클럽」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코너이다.

사실, 방송메커니즘의 성격상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언더문화를 다루는 것은 어려움과 그 한계가 극명했던 것이 사실이다. 솔직히 첫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걱정과 우려가 웃지 못할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요즘 홍대 앞 클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테크노레이브파티 현장을 소개하기 위해 의욕에 찬 촬영에 임했던 제작진은, 예상외의 비협조적인 반응과 어두운 실내조명 때문에 낭패를 보기도 했다. 결국 사정사정해가며 무사히 촬영을 마치긴 했지만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클럽멤버의 선정부터, 코너의 배치와 아이템의 결정까지 참신함과 세련됨을 가장 큰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금요컬처클럽」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보아왔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에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스텝이 기진맥진한 건 당연한 사실.

그러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언더의 토양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힘겹지만 그 의미있는 출발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하나, 「금요컬처클럽」을 빛내줄 중요한 코너로 자리잡을 '피플 & 피플'도 주목할 만하다. 21세기를 이끌어갈 문화 인물을 매주 선정, 솔직한 인터뷰와 현장 취재로 구성될 '피플 & 피플'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계 인물 외에도 참신한 자기실험과 철학으로 주목받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동시에, 그를 통한 문화계 전반을 기름지게 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다.

21세기형 문화게릴라로 불리는 장진 감독, 그리고 최연소 국립극장 예술 감독이자 국악의 현대화를 짊어질 대표 주자로 꼽히는 원일 등이 그 주인공이 될 것이다.

정보와 오락이 만나는 21세기형 퓨전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금요컬처클럽」을 이끌어갈 클럽멤버들에게서도 그 참신성과 세련됨은 묻어난다.

먼저, 편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신용철 아나운서, 그리고 유아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발랄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김혜연 씨가 터줏대감과 안방마님으로, 노련함과 신선함을 조화시켰다.

이 두 사람과 함께 발빠른 문화계 현장과 소식을 전해줄 패널로는 패션모델과 VJ, CF모델로 활약중인 신세대 대표 주자 이유진 씨, 그리고 연극 「지하철 1호선」의 배우이자 다양한 문화현장 경험이 풍부한 장현성 씨가 프로그램의 생생한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특히 톡톡 튀는 신세대적 감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는 이유진 씨의 맹활약은 프로그램의 신선한 윤활유가 되고 있다. 금요일 아침, 향긋한 문화의 향기를 전해줄 「금요컬처클럽」. 도전적인 실험성, 문화계 전반을 꿰뚫는 전문성, 그리고 신선한 감각으로 21세기 문화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SBS

글/강윤이 · 「금요컬처클럽」 작가, 사진/김연식

바쁜 아침 시간, 남편의 출근, 아이들의 등교에 이어지는 집 안 정리, 어수선하고 힘든 주부의 일상이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보면 누구 하나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다독여주는 사람 없다. 허전함을 달래려 예쁜 잔에 커피를 타 들고 리모트컨트롤을 집어 든다. 여기저기 채널을 돌리다 멈추는 곳, 그곳엔 SBS 아침 뉴스, 「뉴스와 생활경제」의 윤지영 아나운서가 있다. 싱그러운 표정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 친구 혹은 마음 놓고 속닥거릴 수 있는 여동생이나 딸처럼 그녀는 그렇게 그곳에 있다. 늘어지기 쉬운 주부들의 오전을 뉴스와 정보로 품위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서정적이면서도 날카로운 그녀의 눈빛

그녀는 풋풋하고, 푸른 열정으로 빛난다. 덕분에 「뉴스와 생활경제」는 의도적인 꾸밈 없이도 편안하고 부드럽다. 이것은 소프라노에 가까운 그녀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브라운관으로 확인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아나운서의 소리지만, 그 속엔 감출 수 없는 비밀이 있다. 어려서부터 무언가 중계 방송하듯이 조잘거리길 좋아했던 그녀는 선화예중과 선화예고에서 성악을 공부했다. 말하는 것을 한 차원 높여 노래로 풀어내고 싶다는 다부진 꿈을 위한 준비 과정

방송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욕심쟁이

윤지영 아나운서

이었다. 물론 대학에서도 성악을 전공하고, 유학 준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자꾸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목청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그 무엇, 아나운서라는 직업이었다.

SBS에 입사하면서 과감하게 성악가의 꿈을 접어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지금 행복하다. 이제 더 이상 성악가가 되기를 꿈꾸지 않는다. 그녀는 그러나 아직도 노래를 인생의 벗으로 삼고 있다. 시간 날 때마다, 대학 은사님을 찾아가 개인 레슨을 받는다. 그것은 방송인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노래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꿈과 유학의 기회까지 떨치고 들어온 방송사이었기에 기대도 대단했다. 하지만 모든 길이 탄탄대로라면 살아간다는 것은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입사 후 긴 기다림의 시간인 6개월 간을 그녀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꼽는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준비도 부족했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한가할 때 더 아프고 지쳐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정신없이 바쁘면서 시간을 쪼개 쓰는 게 행복하거든요. 처음 일을 맡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일이 주어지자마자 사명감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 때 배운 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처음엔 아나운서로 지원하면서 음악 프로그램이나 토크 쇼 진행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난 2년 간 「스포츠 뉴스」「뉴스 퍼레이드」 등 주로 뉴스 진행을 맡으며 자리를 잡았다.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뉴스와 꽤 인연이 깊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뉴스의 맛과 재미도 솔솔 느끼고 있다. 덕분에 아나운서로서의 고민도 늘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 욕심은 줄어들 줄을 몰라요. 잘한다는 평을 듣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얘기도 습관이 돼요. 그 때가 자기자신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시점이지요. 제가 그 부분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어려워요. 요즘은 너무 방송답게 진행하는 게 제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인지 모르지만, 편하고 쉽게 그

러면서도 뉴스 본래의 성격을 그대로 살려가며 진행하고 싶어요."

방송이 사랑스럽고 애인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그녀,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모습은 진지하고 냉철하다. 그래서 일까. 두 눈의 반짝거림이 예사롭지 않다. 서정적이면서도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는 듯하다. 아직은 싱싱한 젊음의 시간, 그녀는 오늘을 누구보다도 푸르게 살고 싶다. 인생의 한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밀레니엄 특집 방송을 위해 이태리로 출장 갔을 때 그녀는 가장 즐거웠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이다. 그들의 가구 회사, 디자인 회사는 회사의 차원이 아니라, 장인들의 공방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의 제자 자리를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곳에 그렇게 일본인들이 많다는 것은 거의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탈 디자인이라는 자동차 디자인 회사에서 만난 디자인 실장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몹시 반갑고 기뻤어요. 자부심도 들고요. 덕분에 잠도 줄여 가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이탈리아 장인들의 삶은 너무 감동적이었죠. 감동적이어서 샘이 날 정도였어요."

오직 한 길만을 가고 싶은 소망

성악가가 아닌 아나운서가 되고 난 후 주위 친지로부터 '그럴 줄 알았다' 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제 방송은 그녀에게 행복을 주는 천직이다. 두 눈이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욕심쟁이, 윤지영 아나운서. 모든 이에게 맛깔 나는 친구도 되고 싶고, 인간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사람도 되고 싶은 그녀의 또 다른 꿈은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보는 것이다. 그러기 전에 아직 그녀 인생의 구석구석엔 채워야 할 곳이 많다. 그녀에겐 그리고 채워넣을 만한 넉넉한 힘이 보인다.

아직도 그녀는 스튜디오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가슴이 떨린다. 그리고 이 떨림은 곧 기분 좋은 긴장으로 이어진다. 이젠 뉴스에 대한 확실한 느낌도 생겼다. 방송은 가리개나 막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아나운서를 통과해 한 번 걸러져야 하는 게 뉴스이므로, 그녀는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서고 싶다. 이것은 방송을 많이 하고 싶다기보다, 좋은 방송을 하고 싶다는, 진정한 뉴스 전달자가 되고 싶다는 그녀의 작은 소망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지금 그녀는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진행이든 리포터든 작은 일도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해내면, 언젠가 자신이 만족하고, 능력 또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어느날 문득 오던 길을 되돌아 보다, 그곳에서 방송인으로서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자신의 모습을 만난다면 그녀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SBS**

글/이지혜 · 시인, 사진/조광희, 의상협찬/The nine, 지센, 장소협찬/CARA di

일상 소재에서 비롯되는 웃음과 재미

「순풍 산부인과」는 왜 재미있는 것일까. 탄탄한 캐릭터, 순발력 있는 대사…, 이렇게 기사의 연장인양 냉정하게 써내려 가자니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

"「순풍 산부인과」가 그렇게 재미있다며? 영화판 사람들이 모여서는 영화 얘기 안하고 순풍 얘기 뿐이야." 방송담당이 된 지 얼마 안 된 올해 초, 뒤늦게 「순풍 산부인과」에 대한 매니아들의 열기를 체감한 옆자리 선배의 부추김에 넘어가 나는 「순풍 산부인과」 작가들의 기획회의 현장을 취재하겠노라고 마음먹었다.

회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너무 오래 취재하면 아이디어가 잘 안나오니 적당히 해 달라"는 당부까지 들은 것은 좋았는데, 연휴 다음날 확인 전화 없이 SBS일산제작센터의 회의장소로 달려갔다 그만 바람을 맞고 말았다. 제작진의 사정으로 회의가 다음날로 연기되었다는 것이었다. 취재는 둘째치고, 모처럼 '공짜 구경'(각종 기발한 아이디어가 탄환처럼 날아다니는 전장을…)을 해보려던 야심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사실 업무상의 약속이 펑크나는 일 따위는 브라운관 밖의 생활인들에게 심심찮게 들이닥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은 친근한 일상에서 소재를 구하는 시트콤이라면 충분히 다뤄 볼 만한 에피소드라고 추천할 만하다. 「순풍 산부인과」에 대한 높은 평가도 황당무계하게 익살스런 이색 소재 대신에 생리 현상을 비롯해 일상에서 실제로 웃음을 자아내는 현실적 소재들을 주로 채택한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가.

하지만 「순풍 산부인과」의 소재가 되려면 한 번의 바람맞이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재난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 법.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 아니고는 「순풍 산부인과」식의 웃음을 만들 수가 없다. 예컨대 선우용녀와 오지명의 결혼기념일 잔치를 준비하던 식구들이 사진퍼즐을 흐트러트린 사고를 수습하려다가 도자기를 깨고, 그림을 찢고, 끝내는 교통사고까지 저지르는 식이다. 매회 두 개의 에피소드를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순풍 산부인과」의 이야기 구조를 에피소드별로 떼어놓고 보면 이런 점증의 기법이 곧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지명의 생일에 고가의 선물을 준비하려는 창훈과 오중을 말리는 영규의 시도 사이에 미달이는 "할아버지,

「순풍 산부인과」에 대한 높은 평가는 황당무계하게 익살스런 이색 소재 대신에 생리 현상을 비롯해 일상에서 실제로 웃음을 자아내는 현실적 소재들을 주로 채택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당해봤을 상황에 머리가 끄덕여지고, 슬그머니 웃음이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 개성 있는 캐릭터와 연기자들의 탄탄한 연기력이 뒷받침돼 「순풍 산부인과」는 언제나 재미가 있다.

할아버지, 제가 생일 선물로 이거 해드리면 할아버지 기쁘시겠어요?"란 대사를 한 네댓 번쯤 거듭한다. 상황의 반복이 짜증 대신 웃음을 주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하는 왕년의 코미디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미묘한 변주를 곁들인 반복의 겹침이 원초적 웃음을 자극한다는 사실만은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순풍 산부인과」 기획회의 취재 바람맞이 사건' 이 성공적인 시트콤의 에피소드로 채택되려면 몇 단계의 가공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건 어떨까. 취재 계획에 있던 아이템이 본의 아니게 펑크난 '나' 는 부랴부랴 「이홍렬 쇼」 기획회의 취재에 나서지만, 이번에는 천재지변으로 바람을 맞고, 다시 다른 프로그램 취재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램이 봄 개편으로 사라진다…, 아무래도 이건 너무 아이디어에 궁한 인상이 짙다. 본래 도전하기로 했던 「순풍 산부인과」 건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좋겠다. 바람맞고 다시 똑같은 취재에 나서는 건 좀 재미없으니까, 「SBS 매거진」에 「순풍 산부인과」에 대한 글을 청탁받는 형태는 어떨까. 어렵게 얘기를 써보냈는데, 지난달에도 「순풍 산부인과」이야기를 다뤘다는 담당 데스크의 지적으로 결과적으로 또 바람을 맞는 걸 한 번쯤 더 넣는 것이다. 비록 한 번 바람을 맞았지만, '나' 는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 않고 프로그램을 냉정히 분석하려고 애쓰고 그래도 따끔한 한 마디로, '요즘 비슷한 에피소드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다' 는 지적도 해주고, 그렇게 공을 들이다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야 좀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데 원고를 쓰고 있는 사무실 한 쪽에서 "「순풍 산부인과」가 시월 달에 끝난다며?" 하는 대화가 들려온다. 연간 25회 남짓 만드는 미국 시트콤에 비해 주 5회, 연간 250회의 에피소드를 짜내야 하는 국내 시트콤 작가들의 고민을 짐작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나' 가 「순풍 산부인과」의 재미 분석' 을 쓰고 있는 이 즈음에 그런 결정이 전해진단 말인가. '설상가상의 재미' 를 주려는 주체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트콤의 결론이지만, 이 짐작 가능한 결론까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서 재미의 성패가 또 한 번 갈린다.

'영웅은 지구를 구한다' 는 뻔한 결론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헐리우드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지만, '…바람맞이 사건' 은 이제까지 진행된 기획안의 재미로 보아 영영 시트콤으로 만들어지기 힘들 것 같다. SBS

글/이후남 · 중앙일보 방송담당 기자

2000 SBS 톱 탤런트

SBS를 이끌어갈 예비 스타들이 탄생하였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화려하게 데뷔한 18명의 SBS 9기 탤런트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총 3,022명의 응시자 중 각자의 개성과 끼로 여러 차례의 관문을 통과하고 지난달 18일 2000년 SBS 톱 탤런트 선발대회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시청자에게 첫선을 보였다. 대상을 받은 전성은을 비롯해 총 18명의 예비 스타들을 「SBS 매거진」이 만났다. 사진/서창식

전성은 1
대상, 코리아나상, 포토제닉상, 80년 생, 경희대 연극영화과 재

SBS 톱 탤런트 선발 대회에서 대상을 포함, 3관왕의 영애를 안은 전성은은 맑고 초롱한 눈이 매력포인트. 도도한 역할로 자신의 끼를 발산하고 싶다는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연기자가 되겠다고 약속한다.

김영옥 2
78년 생, 중앙대 연극과 재

심은하, 이미연, 원미경 선배를 존경한다는 말처럼 해보고 싶은 역도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와 「미술관 옆 동물원」에서의 심은하 역이라고. 연기자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는 연기자 다운 연기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밝게 웃는 미소는 그녀의 매력포인트.

이동훈 3
동상, 79년 생, 수원대 연극영화과 재

이동훈은 노래와 춤은 남들보다 빠지지 않는다. 자신의 매력포인트를 몸(!)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그는 윤 브라너를 좋아하며 해보고 싶은 역도 역시 왕이다. 최고가 되려는 욕심보다는 최선을 다하려는 욕심을 부리겠다고.

원숙희 4
씨티넷인기상, 77년 생, 서일전문 연극영화과 졸

스타가 되기보다는 진정한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그녀는 골프, 스키, 수영 등을 즐기는 스포츠우먼이기도하며 「기쁜 우리 토요일」에서 활동한 바 있다. 도도하고 개성이 강한 역을 해보고 싶다는 그녀의 매력포인트는 맑은 눈과 균형 잡힌 코.

권오영 5
75년 생, USC 경영학과 졸

언젠가는 세계적인 배우가 되겠다는 큰 목표를 세운 권오영은 영어연기가 장기다. 이미 LA 한국방송과 일본 파나소닉에서 CF로 활동한 경력을 지녔다.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를 좋아하며 그들처럼 강한 캐릭터를 연기해 보고 싶다고.

이창주 6
동상, 78년 생, 단국대 불어불문과 재

그룹 N.R.G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는 그는 수영, 스키 등 못하는 운동이 없다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생각하는 연기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시청자에게 다가서겠단다.

차승민 7
누존상, 79년 생, 청주대 연극영화과 재

KBS 「용의 눈물」에서 효경 빈으로 출연, 이미 익숙한 얼굴이다. 「신세대보고 어른들은 몰라요」를 비롯해 영화 「산부인과」, CF 에서도 활동했다. 커다란 눈이 매력인 그녀는 질리지 않고 편안한 연기자가 되고 싶단다.

이다연 8
동상 엔시아상, 79년 생, Hofstra대 보석디자인과 휴학

동상에 이어 엔시아상을 연이어 받은 이다연은 환하게 웃은 모습이 매력 만점이다. 김혜수 채시라를 존경하고 그들처럼 당당한 연기자가 되고 싶다고. 하루하루 발전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배우가 되겠다는 각오다.

한상진 9
78년 생, 서울예대 방송연예과 휴학

한상진은 남들과 다른 자신의 매력이 두터운 눈썹과 얇은 윗입술 그리고 눈빛이라고. 김혜자, 김석훈 등을 존경한다는 그가 하고 싶은 역은 왕 아니면 거지 역이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연기자가 되겠다고 약속한다.

백승욱 1
75년 생, 중앙대 연극과 휴학

연극으로 다져진 연기력에 성대모사와 마임에 일가견이 있다. 안성기, 한석규를 존경하며 그들처럼 코믹연기면 코믹연기, 킬러 역이면 킬러 역을 모두 소화하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싶다고. 항상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하는 것이 계획이다.

최혜영 2
83년 생, 구로여자정보상업고 재

가정중학 등의 잡지모델, 엘리트 학생복 등 CF모델, 그리고 VJ 등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연기자가 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발레와 춤으로 다져진 몸매가 자랑. 사키는 일은 뭐든 열심히 하겠다는 그는 발랄하고 천방지축인 개성이 강한 연기자가 되겠다고.

황금희 3
은상, 77년 생, 동국대 연극영화과 재

SBS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비롯해 영화, 드라마, 리포터, 잡지모델 등에서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황금희는 플룻, 피아노, 발레, 노래 실력 등을 겸비한 만능 엔터테이너. 검사, 의사 등 전문직 여성을 연기해 보고 싶지만 우선 인정받은 연기자가 되고 싶다고.

김성훈 4
은상, 76년 생, 서울예대 연극과 휴학

연극, 영화, 드라마, CF 등에서 간간이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물. 진한 쌍꺼풀을 가진 눈, 우뚝 솟은 코가 매력포인트. 그리고 보디빌딩으로 다져진 몸매는 또 다른 자랑거리다. 코믹 속에 진실함을 담아내는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그는 연기자 이전에 인간이 되고 싶다고.

김수련 5
금상, 79년 생, 중앙대 연극과 재

극단 연우무대에서 「락희맨 쇼」와 영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에 잠깐 출연했다. 음악듣기와 수영이 취미이며 하나를 덧붙인다면 잠자는 것이라고. 유인촌, 이미숙을 존경한다는 그녀는 적응 잘하고, 자연스러운 배우가 되는 게 꿈이다.

김형범 6
75년 생, 청주대 연극과 휴학

이미 연극 15편과 영화에도 출연한 바 있는 연기파. 자신의 매력포인트를 소같은 눈과 높은 코라고 이야기하는 그는 박근형, 최민식, 유인촌, 알파치노 같은 배우를 좋아한다. 생명력이 긴 배우가 되겠다는 그가 하고 싶은 역은 영화 「쉬리」의 여무영 역.

변유미 7
79년 생, 한성대 문헌정보과 재

어릴 때부터 꿈꾸어 오던 탤런트가 막상되고 보니 어떨떨해서 정신이 없다는 변유미는 맑고 큰 눈이 매력포인트. 지적인 변호사 연기에 욕심이 생긴다고 항상 노력하고 착한 연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도기석 8
금상, 74년 생, 서울예대, 영화과 졸

6편의 연극뿐만 아니라 단편영화와 뮤직비디오에서 활동. 이순재, 에드워드 노튼 등을 좋아하며 '몰릴 때까지 몰려서 악만 남은' 연기를 해 보고 싶다고. 에너지가 넘치는 연기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그의 장기는 분위기 메이커.

김민정 9
79년 생, 단국대 연극영화과 휴학

극단 기가의회 단원으로 활동중인 김민정은 뮤지컬 「99 품바」 연극 「거꾸로」등 연극으로 다져진 연기력을 자랑한다. 특기가 너무 많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전형적인 N세대. 진실 되고 투명한 배우, 밝은 연기자가 되고 싶은 것이 꿈.

"인터넷 항해, 내게 맡겨라"

한참, 뮤직박스의 DJ들의 전성기가 있었다. 음악 속에 낭만을 실어 들려주던 DJ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이리저리 기웃거리던 그런 때가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각종 비디오물을 소개하는 VJ가 나타났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VJ라는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

2000년, 인터넷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이때 사이버 세계를 누비며 따끈따끈하고 알찬 정보를 소개해 줄 웹 자키(web jockey)가 탄생했다. SBS i가 실시했던 웹 자키 선발대회를 통해 김명선, 조영득, 김지나 등 웹 자키 제1호가 탄생한 것.

4차의 관문을 거치면서 외모뿐만 아니라 순발력, 재치, 언어구사력을 기본으로 인터넷 지식을 과시했던 이들 3명은 앞으로 사이버 세계를 인도할 전도사가 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SBS인터넷 세상, 김진표의 야간비행」에서 각각 영화, 게임, 음악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는 이들은 이달 3일 SBS인터넷방송 개국과 함께 보다 다양한 인터넷 정보를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

맏이 격인 김명선(73년 생, 부산경상대학 방송연예과 졸)은 방송연예과 출신답게 연기력을 겸비한 웹 자키다. 물론 춤과 노래는 기본. VJ 활동경력을 지닌 그녀는 현재 「SBS인터넷 세상, 김진표의 야간비행」에서 좋은 영화를 선별해 청취자에게 소개하고 개봉작 소개, 개봉극장 안내, 예매 상황 등 영화관련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재미있는 인터넷 방송, 텔레비전과 차별화 된 방송을 만들겠다"는 그녀는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지만 웹 자키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SBS인터넷 세상, 김진표의 야간비행」에서 게임에 관한 한 모든 정보를 전해주는 조영득(78년 생,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재)은 N세대이기에 당연히 웹 자키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웹 자키는 이런 것'이라는 모범이 되고 싶다는 그는 춤, 랩, 노래 실력에 유머감각을 겸비한 만능엔터테이너이다.

"웹 자키는 분석력과 기획력을 겸비한 재주꾼이어야 한다"고 명쾌하게 말하는 막내 김지나(79년 생, 한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재)는 이미 타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한 바 있는 베테랑이다. 현재 「SBS인터넷 세상, 김진표의 야간비행」에서 음악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는 그녀는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 분석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능력 있는 웹 자키에게 필요한 말과 표정 연구를 위해 연극과 뮤지컬을 공부해 보고 싶다는 그녀는 노래와 춤 실력이 수준급이다.

인터넷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이들 웹 자키 1호 3명은 공식 데뷔라는 설렘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기쁨으로 힘차게 새 길을 개척하려고 한다. 질퍽하고 광활한 인터넷 세상에서 앞으로 어떤 발자국을 남길지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SBS

사진/조광희

김명선

조영득

김지나

드라마나 연극, 영화의 중심인물을 주인공 또는 주연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연의 연기를 보조하는 것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연기자를 조연이라고 한다. 그러나 2000년 오늘의 대한민국 텔레비전 브라운관에서는 주연과 조연의 구분이 의미를 잃을 때가 많다. 그 이유는 주연의 연기가 시시해서가 아니라 조연들의 탁월한 연기력과 시청자들로부터의 인기가 오히려 주인공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연기자들의 감칠맛 나는 연기를 보기 위해 드라마를 시청한다는 어떤 시청자의 말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SBS 인기드라마에서 4명의 연기자들이 보여주는 빛나는 연기와 인기를 통해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일일아침드라마 「착한 남자」의 '노주현',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의 '이미영', SBS 특별기획 「불꽃」의 '김나운'과 '송선미'가 바로 그 당당한 주인공들이다.

클로즈업

색깔 있는 연기로 승부한다

노주현 – 탄탄하고 완숙한 연기력

드라마에 주로 무게감 있는 주인공으로만 등장해온 베테랑 연기자 노주현은 일일 아침 드라마 「착한남자」의 박정훈이라는 인물을 연기하고 있다. 그는 이 캐릭터와 드라마를 위해 귀국했을 정도로 이 역에 큰 기대와 애정을 보이고 있다. 극의 전개상 그의 등장이 늦어졌을 뿐이며 성별과 나이를 뛰어넘는 중년의 무게감 있는 우정을 보여주는 여러 명의 주연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나 할까.

그가 펼쳐낸 연기력과 그 연기력이 바탕이 된 다른 캐릭터들과의 조화를 통한 드라마의 완성도가 「착한남자」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의 무게감 실린 편안한 연기는 이제 어떤 캐릭터의 인물이라도 노주현 만의 이미지와 개성, 탄탄하고도 완숙한 연기력으로 드라마의 참 맛을 우리에게 만끽시켜줄 것이다.

색깔있는 연기는 언제나 드라마를 풍요롭게 해준다. 다시 말해 극의 맛과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등장 인물들의 색깔있는 연기가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현재 SBS 드라마의 노주현, 이미영, 김나운, 송선미 등은 세대는 다르지만 분명 그들이 연기하는 캐릭터들을 제대로 살려내고 자신들의 삶과 의지가 훌륭한 연기로 표현되어 그 드라마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극중 캐릭터에 대한 완벽한 소화력과 '노주현' 이라는 연기자만이 펼쳐 보일 수 있는 개성이 어우러져 그의 등장이 드라마와 그 드라마를 시청하는 우리들을 사로잡는 것이다.

이미영 – 삶에서 베어 나오는 자연스러움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에서 장순 역으로 열연을 하고 있는 이미영 역시 대단한 연기자다. 베테랑 연기자로서의 몫을 충분히 하고 있음은 물론 삶 자체에서 베어 나오는 자연스럽고도 진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하이틴 스타로부터 지금 같은 완숙한 연기자가 되기까지 그의 연기자의 길을 반추해보지 않더라도 「당신은 누구시길래」를 통해 비춰지는 그의 모습은 '누나' 같은 정감어린 이미지로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연기자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무거운 분위기에 빠진 한 가정을 재미있는 대사와 연기로 밝고 환하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처음과는 달리 배역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그의 뛰어난 연기력 덕분이 아닐까? 대사 한마디 한마디마다 현실감을 제대로 살리려고 무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는 "주연이든 조연이든 연기를 하면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캐릭터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 주어진 역할을 잘 소화해낼 때 비로소 드라마와 캐릭터가 산다"고 말한다. 역시 좋은 연기자다운 생각이며 그래서 더욱 빛이 난다.

김나운 – 개성 강한 연기로 주춧돌이 된다

SBS 특별기획 「불꽃」에서 주인공인 지현(이영애 분)의 동료 방송작가로 등장하는 소유자 역 김나운도 주목받고 있다. 연기 뿐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진행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가, 그럼에도 개성이 강한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늘 새롭고도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은 역시 자신의 캐릭터를 제대로 소화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들어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직설적인 캐릭터로 시청자들에게 미움을 사는 반면, 마음 한 켠에서 긍정을 받아내는 것은 그녀가 그 역을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소리없는 칭찬으로 풀이된다.

「불꽃」에서는 생활력 강하고 솔직하고 능력 있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으며 역시 작가와 연출자의 의도대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집을 지으려면 기둥과 그 밑받침이 되는 주춧돌이 있어야 하듯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둥이 되는 주연 뿐 아

니라 주춧돌이 되는 조연의 중요성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연기자에 대한 그의 생각이며 좋은 연기를 펼치는 바탕이다.

송선미 – 강한 인상으로 매력을 뿜어낸다

역시 SBS 특별기획 「불꽃」에서 반항아의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서민지 역의 송선미는 한창 자신의 연기의 매력과 능력을 맘껏 발산하고 있는 중이다. 96년도 슈퍼 엘리트 모델 출신으로 「불꽃」에서 거침없는 대사와 행동을 하는 서민지라는 캐릭터를 맡고 있는데 민경(조민수 분)과 성씨가 다른 자매로 출연, 혼자 병들어 사는 친아버지를 위해 수전노인 어머니(서우림 분)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어머니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자신이 원치 않는 출생에 대해 어머니에게 보상을 해달라는 반항적인 모습을 강하게 표현해내 시청자들의 큰 호감을 얻고 있다.

「모델」「이웃집 여자」「아주 특별한 여행」「하나뿐인 당신」 등 많은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연기력을 향상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그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4명의 연기자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의 바탕은 물론 연기력이다. 다양한 극중 인물을 연기했던 연기자들이기에 극중 인물의 특성과 매력을 제대로 이해하여 캐릭터에 대한 뛰어난 소화력으로 그 인물에 대한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캐릭터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소화하고 그 바탕으로 자신의 개성을 덧입혀 살아있는 연기를 펼쳐 보여 개성 있는 표현력으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끈다든지, '캐릭터에 대한 표현이 뛰어나면서도 결코 드라마의 갈 길을 방해하지 않고, 다른 캐릭터들과의 조화에 인색하지 않아 편안한 절제력으로 드라마 구성을 돕는다'는 연기자의 임무에 충실한 것들, 이 모두가 노력하는 자세, 좋은 연기력에서 파생되는 것들이다.

현재 SBS 드라마에서 색깔있는 연기를 펼치고 있는 '노주현', '이미영', '김나운', '송선미' 이상의 4명의 연기자들은 분명 그들이 연기하는 캐릭터들을 제대로 살려내고 캐릭터들 속에 녹아 내리게 한 자신들의 삶과 의지가 훌륭한 연기로 표현돼 그 드라마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SBS**

글/지호진 · 자유기고가, 사진/김연식

청춘 시트콤 「행진」에서 철없어 보이지만 깜찍하고 귀여운 N세대의 전형을 선보이는 이인혜.
고려대 정경학부 1학년인 그녀는 새침한 외모와는 달리
코믹연기에도 자신있다고 큰소리 치는 신세대 탤런트.

탤런트 이인혜

1981년 생으로 지난 92년 KBS 창작동요제와 93년 아시아 · 태평양 전래동요 콘테스트에서

각각 대상을 받았고, 승마와 수영은 기본이고 노래와 가야금, 클래식 기타까지 다루는 만능 재주꾼.

「박봉숙 변호사」, 「종합병원」, 「사랑이 꽃피는 계절」, 「대왕의 길」 등에 출연했던 아역 탤런트 출신.

사진/서창식

"제발 이 제보가 사실이길…"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듀서가 매번 듣는 질문이 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아이템을 찾아내느냐?' 대답은 단 하나, 시청자들의 제보 전화다.

매주 방송 때마다 폭주하는 전화가 제작진의 거의 유일한 생명줄이다. 아마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은 1년도 넘기지 못하고 좌초했으리라는 생각이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동안 제작진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보물 제1호는 손때 묻은 제보철이다. 벌써 7권 째에 이를 만큼 전국 각지에서 온 다양한 내용의 제보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다. 물론 시청자로서는 펜티엄 컴퓨터, 캠코더,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등 꽤 화려한 상품이 탐이 나서겠지만 제작진으로서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제보가 다 사실은 아니다. 제보와 사실사이… 그 사이에서 프로듀서와 작가들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한다.

미리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제보는 그나마 다행인 편, 대부분은 제보자가 무심코 지나치면서 봤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거나 때론 떠도는 소문이기도 하다.

사전 확인이 불가능한 제보는 프로듀서가 직접 6밀리미터 카메라를 들고나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꽝 아니면 성공…. 이런 모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동안의 경험상 90퍼센트 이상이 꽝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10퍼센트의 성공 가능성을 위해 카메라 가방을 챙기는 우리의 씩씩한 용사들!

이렇게 10개의 쓸만한 제보 중에서 8~9개는 섭외과정에서 무산되고 나머지 1~2개 중에서도 프로듀서가 직접 확인결과 주인공이 출연을 거부하거나 아이템으로 질이 부족하거나 해서 촬영을 중도에 접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다보니 작가들의 간절한 바람은 바로 '촬영나간 프로듀서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는 것'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대부분의 전화가 아이템이 펑크나서 거는 것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아버린 것.

단맛나는 기적의 성경책

한번은 섭외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제보철에 적힌 제목은 '단맛 나는 성경책'.

"정말 성경책의 책갈피에서 단맛이 납니까?" 전화를 건 작가가 물어보니까, '그냥 단맛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설탕을 묻혀놓은 것처럼 강한 단맛이 난다'는 것이다. 만약 설탕물이나 꿀, 조청이 묻었다면 책갈피가 쭈글쭈글해질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목사님도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다. 제보자인 40대 K씨의 말로는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던 중 우연히 자신의 성경책을 혀로 핥게 되었는데 그런 현상을 발견했고 곧 기도원의 원장, 부원장,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 등도 확인했다는 거였다. 다른 성경책은 당연히 씁쓸한 보통의 종이 맛만 날 뿐이었고, '이건 하느님의 기적이다'라고 생각한 그는 생업을 그만 두고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원에 들어가 신학공부를 시작, 목회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우리로서는 종교적인 기적 앞에서는 더욱 더 냉정을 찾아야 하는 처지라 확인 작업을 위한 섭외에 착수했다. 우선 성경책 종이인 박엽지(사전의 종이와 동일한 재질)의 성분 분석을 위하여 여러 대학의 화학과에 협조를 부탁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러지 말고 제지 회사에 연구소 같은 게 있잖아? 거기

에 의뢰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을 좇아 전화를 건 곳이 한솔파텍스(옛 한솔제지)이었는데 담당자가 왜 그러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거다. 혹시 자신의 회사에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업체의 몸에 밴 방어자세일까?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분석 실험을 해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담당자는 오히려 "언제 출판된 성경책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아,예. 97년 11월경이라고 하네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곧 이어 작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들어야 했다.

"예, 성경책에서 단맛이 날 겁니다." "예?" 이어지는 그의 설명, "그 당시에(96년에서 97년 사이) 후발주자였던 저희 회사가 벌레 먹지 않고 냄새 좋은 고품질의 종이를 만들기 위해 박엽지에 항균처리를 했는데 그때 종이들이 단맛이 많이 납니다." 일사천리로 설명하는 담당자의 말에 기가 막힌 작가, 아이템은 당연히 꽝 났고…. 그나저나 이 사실도 모른 채 기적이라고 믿고 인생을 바꿔버린 K씨는 또 어떻게 하나, 이 사실을 알게되면 얼마나 충격에 휩싸일까? 우리는 이 사실을 K씨에게는 모르게 하고 목사님에게만 알려드렸다. 지금도 성경공부에 열중일 그 분, 모쪼록 기적이 아니면 어떤가, 그로 인해 그분과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기적 아니겠는가.

상복입고 참석한 결혼식

충남 금산에 사는 한 할아버지께서 40년 넘게 상복을 입고 사신다는 제보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접하기 어려운 감동적인 제보였다. 금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신성현 할아버지(88세)는 얼마 전 딸 결혼식에도 무명옷에 굴건을 입으신 채 참석하셨다고.

사연인 즉, 북한이 고향인 할아버지는 6 · 25때 단신 월남한 실향민으로 그 후 부모님의 생사는커녕 소식을 알지 못해 안타까워하다가 이제는 고인이 되었을 부모님께 불효한 죄로 48년간 상복을 벗지 않고 계신다고 했다. 게다가 매달 보름날이면 빠지지 않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였다. 참으로 세상에 없는 분이었다.

그런데 어렵게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드렸더니 할아버지의 반응은 '아, 애쓰지 말고 오지 마시오' 였다. 순간 낙심에 가슴이 내려 앉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연일 전화로 계속 설득했지만 할아버지의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이제 남은 것은 직접 부딪혀 보는 일 뿐. 한 프로듀서가 자청해서 카메라를 들고 금산에 내려갔다. 할아버지를 뵙자마자 큰절을 올리고 "세상사는 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하고 머리를 숙였다. "허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죄인인 처지에 무슨 방송인고…."

그러나 제작진의 설득에 점점 할아버지의 태도는 누그러졌고 마침내 허락. 프로듀서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한다는 진리 덕에 할아버지의 사연은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청자들의 전화, 그리고 수십 건의 제보 중에서 1~2개를 건지면 다행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밤잠 못 자고 고생하는 프로듀서와 작가들의 노고, 그 덕에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가 저녁 7시대에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도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제작진은 전화 한 통화에 울고 웃고, 지옥과 천국을 오가고 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란다. "제발 이 제보가 사실이길…." SBS

글/류상우 ·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듀서

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꿈꾼다

SBS아트텍 아트1팀 조명감독 최용훈

어두운 무대에 한줄기 빛이 떨어진다. 아무런 움직임도, 존재의 느낌조차도 없던 공간은 그 빛 하나로 생명을 얻는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그 공간에 선 사람은 어느새 주인공이 된다. 그렇게 빛을 통해 존재하는 사물과 사람에게 또다른 생명력을 부여한다. SBS아트텍 아트1팀의 최용훈 조명감독은 바로 그런 일을 한다.

예술적 감각으로 무대를 완성한다

"조명의 역할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돋보이게 해 주는 것'에 있습니다. 배우는 물론 출연자들 모두를 돋보이게 하고 또 그들의 배경이 되는 세트를 돋보이게 하죠. 조명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정해지고 세트가 준비되면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것이 조명팀이다. 세상이 좋아지고 모든 일들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부터가 만만치 않다.

조명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어려운 일이 끝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방송에 있어서 다른 모든 파트가 다 그렇듯이 조명팀 역시 감독의 큐 사인이 떨어지면 긴장이 시작된다. 교양프로그램일 경우에는 그나마 잠시의 '틈'을 느끼지만 드라마나 쇼를 맡게되면 단 1분 1초도 눈 돌릴 사이가 없다.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본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전개되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그때그때 어울리는 조명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리허설이 필요하고 또 대본에 맞는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준비합니다. 같은 장면이라 하더라도 조명을 강하게 해야 하는지 약하게 해야 하는지를 대본을 통해 미리 정해 놓는 것이죠. 그래야만 실수도 없고 좋은 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쇼의 무대를 여러 가지 색을 통해 보다 화려하게 꾸미는 작업이 조명팀에게 달려있는 만큼 신경을 더 써야한다. 이쯤 되면 조명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으로 확대된다. 어떤 색의 조명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내기 때문에 색에 대한 이론은 물론이고 미적 감각까지 동원되어야 한다. 자신의 감각을 최대한 살려 아름다운 무대를 완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바로 이같은 조명 일의 특수성 때문이다.

철저한 준비로 완벽에 도전

SBS가 개국한 직후 입사해서 벌써 10년 가까이 조명팀에 몸담고 있는 최감독은 자신의 일에 대해 누구보다도 매력을 느낀다. 워낙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격이라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로서는 프로그램 현장 곳곳을 누비며 다니는 것이 어떤 일보다도 적성에 맞는다.

그러나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방송사고를 그라고 피해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꼬박 하루를 걸려 완벽하게 설치가 끝났다고 자부했는데 한창 프로그램 진행 도중 램프가 터져 출연자 옷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으며 드라마 세트로 지어놓은 초가지붕의 짚단 위로 램프가 쏟아져 집 한 채를 몽땅 태운 적도 있었다. 그가 방송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도 언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방송사고 보다 최감독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의 결과가 자신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할 때이다. 밤을 새고 일을 마쳤는데 힘겹게 끝낸 일이 그리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을 때는 온 몸에서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송 일이 있을까? 이미 지난 일을 너무 마음에 두고 있는다면 더 좋은 작업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그는 그래서 일이 안될 때마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노력한다.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다른 무대를 자주 찾는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좋은 조명을 위해 여유가 생기면 연극무대를 자주 찾는다는 최감독은 그곳에서 한층 예술성이 풍부한 조명을 보고 실전에 응용한다.

"무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명 감독의 개성에 달려 있습니다. 감독이 선호하는 조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느낌이 표현되니까요. 저 역시 제 무대에 항상 개성을 담으려고 합니다. 조명에 관계되는 일에 늘 관심을 갖고 때로는 남들이 하지 않았던 과감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도 하죠.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면 물론 좋은 것이고 실패를 하더라도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간직하고 있는 그는 안주가 아닌 발전을 위해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진보. 그것이야말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프로의 참 모습이기 때문이다. SBS

글/ 김정덕 · 자유기고가, 사진/ 김연식

SBS인터넷, 'SBS i' 로 사명 변경

SBS인터넷이 3월 25일자로 사명을 (주)SBS i로 변경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사명 변경은 고객제일, 고객지향, 고객중심의 i 컨텐츠 서비스 기업으로의 변화를 통해 고객이 참여하는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인터렉티브 커뮤니티를 지향해 고객의 참여도를 높이는 디지털 시대의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쌍방향이 가능한 모든 애플리케이션까지도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강자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SBS i
www.sbs.co.kr

또한 SBS i는 사명 변경과 동시에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 지난 해 8월 출범 이후 약 6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인프라의 증설, 인력의 충원, 컨텐츠의 추가확보 등으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한 작업을 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컨텐츠와 매일 양산되는 방송컨텐츠, 그리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해 SBS i 의 가치를 더욱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SBS i는 지난 2월말 SK C&C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SBSGOLF.COM사를 출범시켰으며, 지난달 삼성출판사와 여성포털 전문기업 출범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전문 사이트를 별도로 보유하게 됨으로써 풍부한 컨텐츠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다.

한편, 외국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별도의 조인트벤처도 설립, 사업영역의 확장과 질적 · 양적 향상을 기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주축으로 온라인 쇼핑, 교육, 스포츠, 여성, 문화, 엔터테인먼트, 골프 등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하는 SBS i의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Buy6.com, '지역명품관' 개설

SBS i의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쇼핑몰 Buy6.com은 한국능률협회, LG유통과 함께 전국 각 지역의 명품만을 선정해 판매하는 '지역명품관' 을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주 구천동 머루주, 함양산 고추잼 등 고향의 특산 명품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SBS i와 한국능률협회, LG유통이 제휴, 운영하게 되는 지역명품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상품 중 최고 품질의 상품만을 선별, 능률협회의 명품인증마크를 부착해 판매한다.

SBS i는 지역명품관 오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능률협회 및 LG유통과 함께 명품 선정작업에 들어가, 현재 41개 지역 120품목을 1차로 선정해 쇼핑몰에 올려두었다.

선정된 상품을 보면 ▲덕유산 토종 홍화씨(무주군), 진도 구기자차(진도), 감식초(함양) 등 건강 · 기호식품 ▲경상 건대추(경산시), 쌀눈(김포시), 더덕장아찌(순창군), 신안 현미유(정읍시) 등 농축산품 ▲멸치액체육젓(경북 칠곡), 추자멸치액젓(북제주군), 명사각(사천시) 등 수산품 ▲나전칠기(원주시), 유자고을 샴푸세트(고흥군) 등 공산 · 공예품 등이 판매된다.

또한 ▲전국 실크 명품코너 ▲전국 차(茶) 명품코너 ▲전국 쌀 명품코너 등 이벤트 명품코너도 마련했다.

한편 Buy6.com에서는 지난달 14일 화이트데이를 겨

냥한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개최했는데, 꽃배달 서비스 등 네티즌 고객들의 주문으로 당일 오전에 준비한 꽃이 품절되기도 했다.

현재 Buy6.com에서는 연예인 패션 코디제안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 연예인들의 패션을 따라잡기 위한 10대와 20대 초반 여성 고객층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날마다 새로운 Buy6.com 네티즌의 성원과 함께 날로 그 규모를 더해 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쇼핑몰로서 그 진가를 더해가고 있다.

국내 최대의 여성 포털 전문 인터넷 기업 설립

SBS i는 삼성출판사와 함께 지난 3월 17일 SBS사옥에서 양사간 전략적 제휴식을 갖고 여성 포털서비스를 위한 법인 설립에 합의, 조인트벤처인 Women6.com(가칭)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Women6.com은 국내 최대의 여성 관련 컨텐츠를 보유한 삼성출판사의 데이터베이스와 SBS i의 여성층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매체력 등을 기반으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채널정보 및 서비스를 통한 여성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뷰티 · 코스메틱, 건강 · 다이어트, 커리어, 요리, 패션, 재테크, 시사, 법률, 인테리어, 정보통신, 임신, 출산, 육아, 웨딩 등 여성들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와 「생방송 행복찾기」,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과 같은 동영상과 전국 주부들의 다양한 사연 등으로 채워지는 '여자들만의 세상' 이 만들어진다.

Women6.com은 국내 최대의 컨텐츠와 커뮤니티 서비스를 기반으로 여성 전용 쇼핑몰과의 연계도 이루어지게 되며, 무료교육, 전자쿠폰 서비스, 무료 컨설팅, 식단 제공 등 다양한 부가 채널의 설정으로 여성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구성된다.

또한, 삼성출판사의 여성지 「무크」의 컨텐츠로도 활용되며, SBS의 텔레비전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회원들에 대해 온 · 오프라인상에서 모두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사이트는 오는 5월경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며, 3월,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벤처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

SBS i와 사이버중앙을 비롯한 다수의 벤처기업이 함께 마련한 맹인아동 개안수술비 비용 전달식이 지난달 3일 연세의료원 원장실에서 있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SBS i 박찬근 대표이사, 사이버중앙의 송필호 대표이사, 한동관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서인환 한국맹인복지연합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70여 명의 시각장애 어린이 수술비로 5,000만 원이 전달되었다.

최근 많은 벤처 기업들이 뜻 있는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전달식은 사회로부터의 이익에 보답하고, 많은 어린이 시각장애자들에게 세상의 밝은 빛을 되찾아 주기 위한 노력으로써 벤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SBS i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회복지차원의 자선사업에도 눈길을 돌려 더욱 폭넓고 다양한 사회사업에도 노력할 것이다.

'SBS 미디어넷' 출범

SBS 스포츠채널과 SBS 골프채널이 'SBS 미디어넷' 으로 공동체명을 정하고 새롭게 출범한다.

국내 유일의 골프 전문방송 'SBS 골프채널' 과 스포츠 전문방송 'SBS 스포츠채널' 은 합리적인 MPP 운영을 통해 전문 방송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SBS 미디어넷' 으로 새 이름을 정했다.

앞으로 'SBS 미디어넷' 은 전문 채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질 개선과 더불어 각종 프로모션을 펼칠 계획이다. SBS

cine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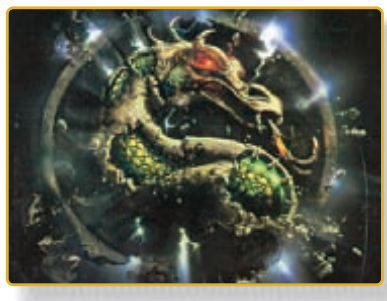
이달의 SBS 영화 특급 | 금요일 밤 10시 55분 방송

자니 핸섬
원제/JOHNNY HANDSOME
감독/월터 힐
주연/미키 루크
방송/2000년 4월 7일 · 담당PD/김재영

선천성 두개골 기형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이 흉칙하게 생긴 자니 세들리(미키 루크 분). 그는 빚에 시달리는 친구를 돕기 위해 강도짓을 하다가 혼자만 잡히고 만다. 함께 강도를 했던 서니(엘렌 바킨 분)와 레이프가 친구 마이키를 죽이고 돈을 챙겨 도망쳐 버린것. 탄로 날 것이 두려운 레이프는 교도소까지 하수인을 보내고 자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재소자의 재활 교정에 의술을 결합시키는 연구를 하던 의사 레셔는 자니를 미남 청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 그러나 그는 담당형사의 우려대로 과거의 원수에게 복수하러 가는데….

모탈 컴뱃 2
원제/MORTAL COMBAT:ANNIHILATION
감독/존 R.레오네티
주연/로빈 쇼유, 탈리사 소토, 데론 맥비
방송/2000년 4월 14일 · 담당PD/김하정

아웃월드의 황제인 샤오 칸은 아웃월드와 지구를 합병시켜서 파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민다. 이에 대항할 힘을 모으기 위해 레이든은 류캉과 파이터들을 집합시킨다. 자신의 야욕을 채워줄 악의 파이터들을 데리고 레이든 앞에 나타난 샤오 칸. 류캉은 샤오 칸에 맞서 평화의 결정적인 열쇠를 가진 키타나 공주와 함께 그들의 소굴로 찾아간다. 그러나 키타나 공주를 그들의 손에 빼앗기고 류캉은 그들의 함정에 걸려든다. 정신없이 일격을 가해오는 샤오 칸 일당들은 마침내 레이든을 죽이고 만다. 이에 분노한 파이터들은 류캉을 앞세우고, 6일째의 마지막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매버릭
원제/MAVERICK
감독/리차드 도너
주연/멜 깁슨, 조디 포스터, 제임스 가너
방송/2000년 4월 21일 · 담당PD/송길우

호화 유람선에서 열리는 선상 포커 경기에 참가하려는 빽질이 도박사 브렛 매버릭(멜 깁슨 분)은 참가금 2만5,000 달러를 모으는데 혈안이 된다. 각지를 돌아다니며 때로는 실력으로, 때로는 사기도박으로 돈을 모으는 와중에 여자 도박사 애나벨 브랜스 포드(조디 포스터 분)를 만난다. 이들은 서로를 속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만 서로 부딪치는 동안에 묘한 감정이 싹튼다. 그러나 이들의 뒤를 바짝 쫓아오는 순회 보안관 제인 쿠퍼(제임스 가너 분)의 존재로 인해 이들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마침내 이들 3인조는 우여곡절 끝에 배 위에서 만나게 되는데….

노 웨이 아웃
원제/NO WAY OUT
감독/로저 도널드슨
주연/케빈 코스트너, 숀 영, 진 헤크만
방송/2000년 4월 28일 · 담당PD/김하정

탐 파렐(케빈 코스트너 분)은 성실하고 용감한 군인 정신으로 훈장까지 탄 직업 해군 장교이다. 국방장관 자문관인 프리챠드는 파렐의 대학 선배로 파렐을 브라이스 국방장관(진 헤크만 분)에게 소개시켜 준다. 탐은 국방장관의 정부인 줄도 모르고 수잔(숀 영)과 밀회를 즐긴다. 이상한 낌새를 챈 브라이스는 수잔을 추궁하던 중, 실수로 그녀를 살해하게 된다. 당황해 하는 브라이스에게 프리챠드는 수잔과 주말을 함께 보낸 남자에게 살해 혐의를 덮어 씌우자고 제안을 한다. 브라이스는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조사를 파렐에게 맡기게 되는데….

따사로운 햇살이 나른하게 느껴지는 계절. 싱그러움과 화려함으로 봄을 맞이하는 꽃잎처럼 라디오세상 속에도 파릇파릇한 봄기운이 가득하다. 자칫 따분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이때, 라디오세상과 함께 싱싱 푸른 봄을 만끽해 보자.

「SBS 인터넷 세상-김진표의 야간비행」

기획/박동주, 연출/이재춘, 진행/김진표, 방송/매일 밤 12시

"21세기는 인터넷이 지배한다."

이건 엄포도, 과장도 아니다. 요즘 세상은 인터넷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친구들과 국제 채팅을 하는가 하면, 돈 내고 국제전화를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즘 우리들은 인터넷에서 다이얼 패드로 해결하니까.

이제 인터넷을 모르면 넷맹을 떠나 세상의 낙오자가 된다. 무섭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SBS PC통신-김진표의 야간비행」이 「SBS 인터넷 세상-김진표의 야간비행」으로 '간판'을 바꾸고 새롭게 비행을 시작한지 두 달 남짓. 과연 인터넷 채팅이 매일 가능할 것인가하는 스태프들의 불안은, 연일 '대박'을 예감케 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글들과, 매일 밤 불야성을 이루는 인터넷 대화실의 북적거림 속에 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 김진표가 있다. N세대답게 거침없는 솔직한 표현들, 모니터에 떠오르는 대화들을 번개처럼 낚아채 방송에 반영하는 순발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유의 자유스러움. 김진표가 있는 곳에 네티즌이 있고, 네티즌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그리고 자유가 있는 곳에 「SBS 인터넷 세상-김진표의 야간비행」이 있다.

「김진표의 야간비행」은 따끈따끈한 새 앨범과 함께 일주일을 시작한다. 새로 나온 앨범 중에서 다섯 곡이나 골라 들어보는 '뮤직 오디오'가 바로 그 코너. 타이틀 곡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기 쉬운 곡들도 이날만큼은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유행하는 최신 유머들을 선별해 들려주는 '공개 사과'가 다음날 이어진다. 그날 가장 재미없는 유머를 소개해 준 게스트가 그날의 공개 사과를 전담한다. 가수의 탈을 쓴 개그맨(?) 듀크와 김경수가 함께 진행하는 시간이다.

수요일엔 김현성, 이소은이 펼치는 재미있는 아이디어의 세계, '이런 건 어때요?'가 자리를 지킨다. 매주마다 정해진 주제에 따라 청취자들이 소개하고 싶은 글이나 아이디어를 보내주는 코너이다.

목요일엔 윤종신, 박기영과 함께하는 'www.토크'가 있다. 인터넷과 함께하는 방송답게 인터넷 설문 조사를 기초로 진행되는 토론 코너다.

금요일엔 이현도가 소개하는 힙합의 세계 '완전 힙합'이 준비되어 있고, 토요일엔 SBS 웹 자키들이 쏟아놓는 인터넷 정보들로 한 시간을 꾸민다.

그리고 풋풋한 신인과의 만남, '발견, 뉴 페이스'로 「김진표의 야간비행」은 일주일간의 비행을 마친다. 이런 방송들을 귀로만 듣기 아깝다면, 지금 www.sbs.co.kr를 접속해 보시라. 「김진표의 야간비행」 스튜디오 풍경을 일주일에 두 번, 여과없이 볼 수 있다. 월요일과 일요일 밤 12시. SBS 인터넷 세상에서, 야간비행 스튜디오 풍경을 만나보시길. 그곳에 오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SBS

글/오정은 · 「SBS 인터넷 세상-김진표의 야간비행」 작가, 사진/조광희

「이숙영의 파워 FM」

기획/전윤표, 연출/송연호, 진행/이숙영, 방송/매일 아침 7시

정보로 승부하는 아침의 연인

「이숙영의 파워 FM」이 지향하는 바는 아침 두 시간의 생방송을 듣고나면 최신 유머는 물론, 그 날의 각종 핵심 뉴스, 요즘 잘 나가는 음악, 문화정보, 스포츠 소식, 교통 정보, 신세대 의식구조, 남녀 심리의 차이 등 그때 그때 트렌드를 알게 하자는 것이다.

정보로 승부한다는 것, 방송을 듣고 난 뒤 뭐 하나는 건졌다는 기분이 들게 할 것, 그래서 적어도 방송을 듣고 난 뒤 허망함을 느끼게 하지 않겠다는 것 등이 이 프로그램의 정신이다. 예를 들면 매일 빠지지 않는 기상정보와 교통정보(이것은 직접 청취자들의 전화제보를 받아 즉각 반영하고 있다), 김태오의 영어 한마디, 8시의 조간 브리핑, 오늘의 유머 등이 일일코너이다.

2부 고정코너들을 보면 월요일에 여의도 사랑방, 화요일엔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의 남성클리닉, 수요일에 화제의 인물 전화 인터뷰, 목요일에는 문순민 지점장의 재테크, 금요일에는 하재봉의 파워시네마, 토요일에는 신중섭 기자의 레츠고 스포츠 등이 있다.

3부 코너로 넘어가면, 월요일엔 청취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아 듣고 싶은 음악을 즉석에서 배달하는 뮤직 퀵 서비스, 수요일엔 촉촉한 시 한편을 공유하는 시간이며 목요일엔 눈물나도록 웃기는 영어강사 곽영일의 테마가 있는 팝스 그리고 토요일엔 '싸가지 아저씨' 윤문식 씨 코너 등이 준비되어 있다.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이어지는 4부는 또 어떤가? 월요일에 허정 박사의 건강칼럼, 화요일엔 우리 애정당 당원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배달을 하는 러브콜 시간, 수요일에 지적인 남자의 대명사인 시인 김갑수가 전하는 독서정보, 목요일은 「이숙영의 파워 FM」의 자랑인 호주로 가는 퀴즈, 금요일은 특정 주제를 놓고 청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금요 폰 데이트, 토요일에는 신청한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생방송으로 노래 실력을 뽐내는 포크와 만납시다 등등 정말 다양한 코너들이 생명력을 발휘한다.

듣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아침마다 신선한 자극과 탱탱함으로 인생이 살만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송연호 프로듀서, 송정연 작가, 각종 자료를 분리 전달하는 천진란 씨, 그리고 진행자인 나까지 매일 숨가쁘게 뛰고 있다.

사실 요즘은 방송의 소프트웨어인 내용이 승부의 변수인 만큼, 표면에 나타나는 진행자보다 뒤에서 받쳐주는 스태프들의 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다. 특히 「이숙영의 파워 FM」은 순전히 여성 파워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선 팀의 리더인 송연호 프로듀서는 팝 프로 경력이 이십 년도 넘는 '골드 미스'다. 음악에 대한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남자에 대해서만큼은 초월(?)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는 해서 애정당 당원인 스태프들을 안타깝게 만들곤 하는 배테랑이다.

송정연 작가는 예리한 시사감각을 갖고 있는가하면 인생과 사랑과 시에 대한 깊은 통찰력, 연령 파괴가 기본인 신세대 감각과 유쾌한 장난기, 앞서가는 국제감각과 더불어 문학을 비롯해 문화 전반에 걸친 왕성한 호기심과 지식을 갖고 있으니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하늘이 내려주신 작가라고나 할까?

또한 한없이 맑고 성실하고 착한 막내, 천진란 씨도 이 시간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면을 빌어 한결같은 애정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는 스태프들에게 새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평생의 화두가 사랑인 만큼, 애정당 당수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나, 이숙영도 애정당의 당원들인 애청자들을 위해 세월과 더불어 나태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무한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과 정보수집으로 한층 더 사랑받는 아침의 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한다. 충성! SBS

글/ 이숙영 · 「이숙영의 파워 FM」 진행, 사진/조광희

주간 기본 편성표

TV SBS

CHANNEL 6 2000년 4월 1일 현재

MON	TUE	WED
AM	**AM**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나잘난 박사 재방송	11:00 나잘난 박사 재방송	11:00 나잘난 박사 재방송
11:05 SBS 화제작 시리즈 청춘의 덫	11:05 SBS 화제작 시리즈 청춘의 덫	11:05 SBS 화제작 시리즈 청춘의 덫
11:55 정겨운 우리 가락	11:55 정겨운 우리 가락	11:55 정겨운 우리 가락

PM	**PM**	**PM**
4:00 춤추는 젤라비	4:00 춤추는 젤라비	4:00 춤추는 젤라비
4:3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4:30 신기한 동물나라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00 SBS 뉴스퍼레이드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짱구는 못말려	5:45 짱구는 못말려	5:45 구슬동자
6:15 메가레인저	6:15 메가레인저	6:15 포켓 몬스터
6:45 행진	6:45 행진	6:45 행진
7:15 코리아 GO!GO!GO!	7:15 스타 쇼	7:15 머리가 좋아지는 TV
8:00 SBS 8 뉴스	8:00 SBS 8 뉴스	8:00 SBS 8 뉴스
8:40 나잘난 박사	8:40 나잘난 박사	8:40 나잘난 박사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월화드라마 사랑의 전설	9:55 월화드라마 사랑의 전설	9:55 특별 기획 불꽃
10:55 이홍렬 쇼	10:55 오늘과 내일	10:55 김혜수 플러스 유
AM	**AM**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05 SBS 나이트라인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00:20 스포츠 와이드	00:20 스포츠 와이드

'주식회사 SBS'로 사명 변경

SBS는 지난달 17일 제 1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SBS의 사명을 '주식회사 서울방송'에서 '주식회사 SBS'로 교체하는 것이 의결됨에 따라 대내외적인 명칭을 'SBS'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홍보에 나섰으며 등기부 등본상으로 상호변경이 완료되는 이달 초,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호도 SBS로 표기된다.

SBS 결식아동돕기에 12억 성금 전달

SBS는 지난 연말에 펼친 「99 사랑의 이름으로 -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성금 12억 원을 모아 지난달 28일 전국 7개 광역시의 15개 교육청과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 각각 6억 원씩 전달했다.

SBS가 '새 천년에는 굶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를 슬로건으로 마련했던 「99 사랑의 이름으로」는 작년 12월 11, 12일에 걸쳐 특별 생방송되었고, ARS 모금과 결연 및 정기 후원모집, 스타들의 핸드 프린팅 판매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사랑을 모았었다.

특히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에는 전국의 5,000여 개 유치원 및 초, 중, 고교가 참가했으며 각 학급당 1개의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비치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기금은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국내 순수 제작 애니메이션 우주공상과학 그린 「스페이스 간담 V」

우주 공상 과학을 그린 만화영화 「스페이스 간담 V」가 어린이들의 관심을

THU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나잘난 박사 재방송
11:05 실속 TV! 시선 집중
11:55 정겨운 우리 가락

PM
4:00 춤추는 젤라비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구슬동자
6:15 포켓 몬스터
6:45 행진
7:15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8:00 SBS 8 뉴스
8:40 나잘난 박사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특별 기획 불꽃
10:55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FRI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나잘난 박사 재방송
11:05 금요 컬처클럽
11:55 정겨운 우리 가락

PM
4:00 춤추는 젤라비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스페이스 건담 V
6:15 카드캡터 체리
6:45 행진
7:15 이경실, 이성미의 진실게임
8:00 SBS 8 뉴스
8:40 나잘난 박사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기분 좋은 밤
10:55 영화특급

AM
00:35 SBS 나이트라인
00:50 스포츠 와이드

SAT

AM
6:00 토요특집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9:00 토요 스타클럽
10:00 생방송 행복찾기(1부)
11:00 생방송 행복찾기(2부)

PM
12:00 SBS 뉴스
12:10 열린 TV 시청자세상
12:55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4:45 SBS 뉴스
4:55 순풍 산부인과 스페셜
5:50 기쁜 우리 토요일
7:00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8:00 SBS 8 뉴스
8:35 스포츠 와이드
8:50 주말극장 왕룽의 대지
9:50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
10:50 그것이 알고싶다
11:50 SBS 골프

AM
00:50 SBS 나이트라인

SUN

AM
6:00 일요특집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1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00 뉴스 추적
8:50 일요아침드라마 달콤한 신부
9:50 LA 아리랑
10:50 좋은 친구들

PM
12:00 SBS 뉴스
12:10 접속! 무비 월드
1:0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4:45 SBS 뉴스
4:55 생방송 SBS 인기가요
5:50 호기심 천국
6:50 로드쇼! 힘나는 일요일
8:00 SBS 8 뉴스
8:35 스포츠 와이드
8:50 주말극장 왕룽의 대지
9:50 일요드라마 카이스트
10:50 임백천의 원더풀 투나잇

AM
00:10 SBS 시네마 2000
02:00 SBS 나이트라인

모으고 있다. SBS가 국내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스페이스 간담 V」(총 4부작)를 지난달 31일부터 방송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인 김청기 감독의 우주공상과학 만화로, 1983년 제작. 잘 짜여진 스토리의 전개와 전투기로 변신하는 로봇의 메커니즘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스페이스 간담 V」는 지구의 정복을 꿈꾸는 악당 하데스와 스페이스 간담 V를 조정하는 디케와의 결전을 그리고 있다. 우주의 평화를 지키려는 시그마별의 우라너스 총통은 점점 전쟁과 공해로 황폐해가는 지구의 존폐 여부를 확인하고자 미리 파견된 하데스에게 디케를 보내게 되는데….

2002 월드컵 남미예선 단독중계

SBS는 오는 2002년 월드컵 개막을 알리는 지구촌 최대의 축구 예선 경기인 남미예선을 단독중계할 예정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우루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라과이,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10개 국이 참가하는 이번 남미예선은 특히 8년 만에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함께 예선에 출전하게 되어, 전 세계 축구팬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다.

남미예선은 지난달 29일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2001년 11월 15일 페루와 볼리비아의 마지막 경기까지 2년 여에 걸쳐 펼쳐진다.

SBS는 한종희 캐스터와 강신우 해설위원의 진행으로 남미예선 총 90경기 중 축구팬들의 관심이 높은 50경기를 생방송이나 2시간 정도 시차를 두고 릴레이 방송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인 유럽예선도 단독중계한다.

주간 기본 편성표

SBS FM

표준

FM 103.5MHz
AM 792KHz

CHANNEL 6 2000년 4월 1일 현재

MON - SAT

AM

5:00 뉴스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6:00 뉴스
6:05 SBS Good morning japanese
6:30 봉두완의 SBS 전망대
7:00 아침 종합뉴스
7:10 봉두완의 SBS 전망대
8:30 노성태의 경제레이다
8:40 새 천년 명의에게 듣는다
8:55 공항정보
9:05 아름다운 세상 손숙 · 배기완입니다
11:05 손혁재의 세상 속으로

PM

12:00 낮 종합뉴스
12:20 정선희 · 김진수의 OH! HAPPY DAY
2:00 SBS 뉴스라인
2:20 김찬식, 전여옥의 밀레니엄 정보 쇼
4:05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5:05 문인숙의 노래 세상
6:30 이성미, 지석진의 라디오 데이트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8:30 염용석 · 유지현의 투나잇 쇼
9:30 김태욱의 스포츠 쇼
10:05 류시원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00:00 SBS 인터넷 세상-김진표의 야간비행
1:00 손승욱의 Cine Music Club
2:00 은지향의 Let the music play 1부
3:00 이재춘의 Let the music play 2부
4:00 변정원의 Sweet Music

월~토요일
▶05:00~07:00 매시 정각에 뉴스
▶09: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일요일
▶05: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SUN

AM

5:00 뉴스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6:00 뉴스
6:05 김재홍의 시인의 마을
7:00 아침 종합뉴스
7:10 SBS TEPS English-Let's go TEPS
8:05 한비야의 세계 풍물 기행
9:05 아름다운 세상 손숙 · 배기완입니다
11:05 조경철의 라디오 25시

PM

12:05 10시간 생방송
일요음악여행 1 · 2 · 3 · 4부
4:05 일요음악여행 5 · 6 · 7 · 8부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8:30 일요음악여행 9 · 10부
10:05 류시원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00:00 SBS 인터넷 세상-김진표의 야간비행
1:00 손승욱의 Cine Music Club
2:00 은지향의 Let the music play 1부
3:00 이재춘의 Let the music play 2부
4:00 변정원의 Sweet Music

이제는 생명이다 - 물과 생명

연출/김영우, 방송/4월 7일 오전 8시 30분
연중 캠페인 '이제는 생명이다'를 주제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특집 6번째 소제는 '물'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이영주 부장, 생활문화연구소 박종대 교수 등 물과 생명의 관계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청, 의견을 들어본다

이제는 생명이다 -공기와 생명

연출/손승욱, 방송/4월 8일 오전 8시 30분
SBS가 연중캠페인으로 기획한 특집 프로그램. '이제는 생명이다'는 생명의 존엄성을 다각도로 접근, 일깨우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그 하나로 공기와 생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환경연합 최열 사무총장, 녹색연합 서재철 등이 출연 예정이다.

SBS MUSIC WORLD

연출/이재춘, 방송/4월 16일 낮 12시 5분,
공개 방송/4월 9일 12시 롯데월드
화창한 날씨에 온 가족이 야외에서 음악을 들으며 봄 정취를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롯데월드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뮤직 쇼가 가족과 함께 나들이 나온 청취자들과 함께한다. 타샤니, 샤크라, 코요태 등이 출연할 예정.

사랑과 우정의 뮤직페스티발

연출/구경모, 방송/4월 16일 밤 10시 5분,
공개 방송/4월 8일 저녁 7시 에버랜드
에버랜드에서 펼쳐지는 버라이어티 쇼, 「사랑과 우정의 뮤직페스티발」은

SBS FM POWER 107.7MHz

MON - SAT

AM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6:00 곽영일의 파워 잉글리쉬
7:00 이숙영의 파워 FM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11:00 심혜진의 시네 타운

PM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2:00 박철의 2시 탈출
4:00 장호일의 뮤직토피아
6:00 허수경의 해피 투게더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10:00 진희, 승현이의 텐! 텐! 클럽

AM
00:00 박소현의 러브게임
1:00 스위트 뮤직박스
3:00 사운드 오브 뮤직

SUN

AM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6:00 곽영일의 파워 잉글리쉬
7:00 이숙영의 파워 FM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11:00 심혜진의 시네 타운

PM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2:00 박철의 2시 탈출
4:00 장호일의 뮤직토피아
6:00 허수경의 해피 투게더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10:00 진희, 승현이의 텐! 텐! 클럽

AM
00:00 째즈 스테이션
1:00 스위트 뮤직박스
3:00 사운드 오브 뮤직

나들이 나온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개방송. 이수영, 김장훈, 터보 등이 출연할 예정.

고창 시민과 함께

연출/이재춘, 방송/4월 30일 밤 10시 5분,
공개 방송/4월 21일 저녁 7시 고창

전북 고창 지역의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개방송이다. 타샤니, 샤크라, 코요태 등이 출연할 예정.

새봄 새천년

연출/이재춘, 방송/5월 5일 밤 10시 5분,
공개 방송/4월 29일 저녁 7시 M Police공원

가족과 함께 싱그러운 야외에서 봄의 정기를 맞으며 새 천년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가족청취자들과 함께 만드는 「새봄 새천년」 공개방송이 그 것. 신화, 임창정, GOD, 구피 등이 출연할 예정.

SBS 프로덕션, 새 비디오 2편 선보여 「춤추는 젤라비 2탄」 & 「별나라 친구 올리 2탄」

SBS 프로덕션은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만화영화 「춤추는 젤라비 2탄」과 「별나라 친구 올리 2탄」을 1탄에 이어서 각각 비디오로 출시하였다.

모두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이들 만화 프로그램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달 시켜주는 우수 유아 프로그램으로 주목 받아왔다.

특히 「별나라 친구 올리」는 최고의 유아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에미상을 수상 하였다. 또한 춤추는 젤라비 2탄」은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VCD로 제작되었다.